

대한상의 브리프

이은결 아시아경제 기자



제96호 2019년 5월 13일



편집자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도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수기업들이 대를 이어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간직해온 그들만의 비결과 조건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명문 장수기업의 비결과 조건

유럽에는 가족 장수기업이 많다. 200년 이상된 가족 회사가 4,000개를 헤아리는데 최소 7~8대를 넘어 생존해 있다는 뜻이다.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도 20%가량은 가족기업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장수기업으로 바이에른의 귀족 가문이 운영하는 폰 포칭거를 들 수 있다. 포칭거社は 유리제품으로 유명한데, 1568년부터 4백년 넘게 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폰 포칭거는 ‘도제식 교육을 통한 최고의 장인 육성’이라는 경영 철칙을 통해 세계적인 유리 명가로 발돋움했다.

프랑스에는 포도주 명가인 위겔이 있다. 1639년 처음 포도주를 생산한 이래 38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0개국으로 포도주를 수출하고 있다. 위겔의 장수 비결은 가족의 연대의식에 있는데,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가족간에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한다.



[13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위겔 가문]



※ 출처 : 세계일보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장수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일본이다. 200년 이상 이어온 장수기업이 3천 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장수기업으로는 ‘호시료칸’을 꼽을 수 있다. 호시료칸은 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 최장수 기업으로 1300년 전인 718년에 설립됐다. 현재 객실 수는 웬만한 호텔과 비슷한 70개, 직원은 100명이 넘는다. 일본 전통의 가족주의 경영을 바탕으로 철저한 ‘장자 계승 원칙’과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겸손의 미덕’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승의지’ ‘사회적 신용’ ‘분수에 맞는 경영’이 핵심 요인

일본 컨설팅기관 ‘100년경영연구기구’는 장수하는 기업들의 성공 요인으로 기업이 ‘사회의 공기(公器)’를 지향하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 세대에 계승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10년, 30년, 100년의 단·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장기 경영을 위해 ‘사회적으로 신용’을 얻는 것을 최대의 재산으로 여기고, 하이리턴보다 확실성을 중시해 ‘분수에 맞는 경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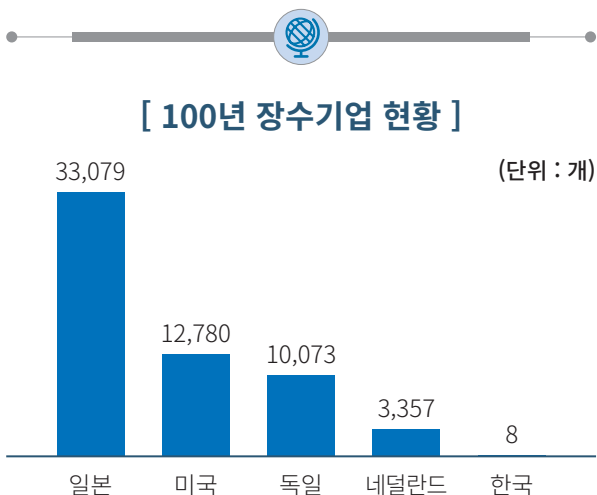
그렇게 하다 보니 불경기에도 견딜 수 있는 재무체계 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오래 경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0년 기업, 1위 일본, 2위 미국, 3위 독일

장수기업은 나라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독일과 같이 기업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통상 ‘창업 100년 이상’, ‘2대 이상’ 가업을 지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업력 30년 이상의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규정하고 45년 이상된 곳을 명문장수기업의 범주에 넣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0년 이상된 기업은 일본 3만 3079개, 미국 1만 2780개, 독일 1만 73개, 네덜란드 3357개 순이다.

기업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창업 100년 이상 기업이 두산(1896년 창업), 동화약품·신한은행(1897년 창업) 등을 비롯해 8곳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장수기업으로 가는 관문 ‘가업승계’

장수기업의 형태는 국내는 물론 미국(92%), 유럽(60% 이상) 등 해외에서도 가족기업이 대다수다. 가업의 승계 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업이 아니더라도 ‘승계’는 장수기업으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기업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다. 장수기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과 독일도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경영자의 고령화와 덜 준비된 승계 때문이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승계와 관련된 세금 부담이다. 향후 10년 이내 가업승계를 원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아직 승계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업승계지원제도 실효성 높여야

정부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지원 범위가 협소하다. 지원 규정도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 수를 10년 동안 유지하게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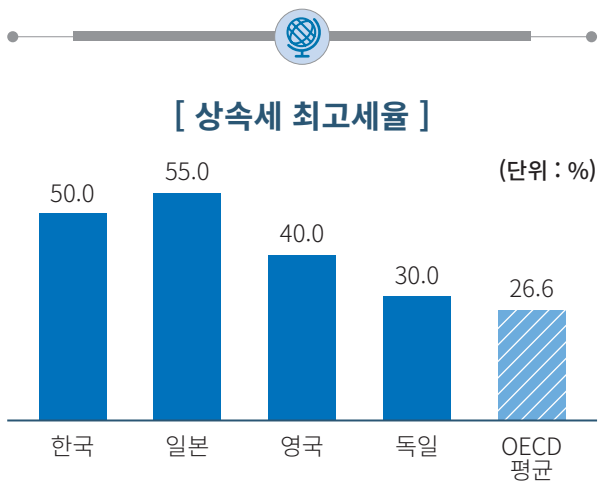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5~7년이고, 일본은 5년, 프랑스는 3~4년이다. 일본은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독일은 급여총액(5년간 400%)으로 유연하게 적용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요건이 없다.

최근 5년(2011~2015) 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는 연평균 62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우리나라의 약 280배인 1만 7000여건에 달했다.

우리도 상속규모 등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완화·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유지 조건의 경우도 근로자 수가 아닌 급여총액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세계최고수준인 상속세율

현행 상속세율은 상속금액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을 물려받으면 30% 할증이 붙어 실질세율은 최대 65%까지 높아진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상속재산금액이 클수록 상속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유형을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일본처럼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산과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고, 취득과세는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만 과세하는 방법이다.

‘부(富)’ 아닌 ‘기업가정신’의 승계

한편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의 대(代)물림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기업들 스스로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승계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를 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속세 인하나 공제요건을 완화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백세시대,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업승계를 위한 사회·문화적 자양을 축적해 10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5월 13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E)	IMF		OECD	
			2019 ^(P)	2020 ^(P)	2019 ^(P)	2020 ^(P)
한국	3.1	2.7	2.6	2.8	2.8	2.9
세계	3.7	3.6	3.3	3.6	3.5	3.5
미국	2.2	2.9	2.3	1.9	2.7	2.1
중국	6.9	6.6	6.3	6.1	6.3	6.0
일본	1.7	0.8	1.0	0.5	1.0	0.7
EU	2.4	1.8	1.3	1.5	1.8	1.6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8.12월	'19.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23	1,122	1,122	1,131	1,141
원/엔(100엔)	1,068	1,009	996	999	1,030	1,016	1,017	1,022
원/위안	174.4	167.5	166.4	162.9	164.9	166.4	168.4	169.8
원/유로	1,283	1,276	1,299	1,277	1,282	1,272	1,278	1,282
유가(Dubai)	53.8	53.2	69.7	52.9	57.3	64.5	66.9	71.1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8.12월	'19.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3.0	2.5	1.4	0.4	0.9	-1.9	-0.7	-
소매판매	3.9	1.9	4.3	3.1	4.3	-1.8	2.4	-
설비투자	-1.3	14.1	-3.8	-15.1	-17.0	-26.8	-15.5	-
수출	-5.9	15.8	5.4	-1.7	-6.2	-11.4	-8.2	-2.0
수입	-6.9	17.8	11.9	1.1	-1.7	-12.6	-6.7	2.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